

72

식당 조리사에서 발생한 수근관증후군

성별	여	나이	49세	직종	식당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김○○(49세, 여)은 1999년 11월 공사 현장의 식당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12월에 퇴사 하였다. 입사 후 20여일이 지난 12월초 손의 동통, 손가락의 부종 및 운동제한, 팔과 어깨로의 방사통이 있었고, 퇴사한 동년 12월 대학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신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조리업무는 10명이 밑반찬을 만들거나, 설거지, 국 배식을 하고 도시락을 준비하였다. 작업량은 근무자를 위한 3식으로 조식은 700~800명분, 점심 300~400명 식사와 600개의 도시락, 저녁 300명분 식사와 50~100개의 도시락을 만든다. 작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였다.

3 인간공학적 분석

조리작업에 대한 업무 부하는 긴장도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다. 업무 자체가 복잡적이며 비정형적 이어서 평가하기 곤란하였으나 그 결과는 7 이상으로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다.



4 의학적 소견

재해자의 과거 근골격계 관련질환으로 어깨의 유착성피막염, 어깨관절의 염좌, 원발성 관절증, 근육통 및 경추부 염좌, 어깨의 유착성피막염, 근육통,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외래 치료를 다수 받은 바 있었다.

5 고 찰

수근관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당뇨 등의 내분비질환, 류마티스 관절염, 비특이적 활액막염, 드물게는 종양 등이 있고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, 본 환자의 경우 어느 것이 원인인지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
5 결 론

김○○은

- ① 수근관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이미 양측 모두 수술을 받은 근로자로,
- ② 실제로 다빈도의 손과 손목의 반복 작업 및 손목 굴곡이 요구되는 작업 공정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, 약 1개월 간의 조리, 식기 세척, 배식 등의 작업으로 수근관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,
- ③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지 2주 이후부터 양손의 근력 약화, 감각장애, 국소통증이 발생하여 지속 악화되었으나,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질병을 밝힐 수 없으나 근골격계질환으로 다수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
- ④ 이 질병의 호발군인 50대의 여성으로서 가사활동에 장기간 종사하였으므로 김○○의 수근관증후군은 1개월 간의 식당 조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다 개인적 요인이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.